

증권·보험서 은행까지… 새 영토 ‘테크핀’서 진검승부

NAVER

네이버페이 1000만명 이용자 활용 계좌등록 등 수월해 영역확대 용이 AI 접목, 종합자산관리플랫폼 목표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네이버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대출, 보험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가 가진 이용자 수를 활용해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네이버 아이디로 계좌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증권시장 등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는 월 1000만명이 넘는 결제자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여기에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하면 금융 경쟁력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지난 해 3분기 네이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 결제, 페이, 증권, 부동산 등으로 유입되는 금융 관여도 높은 트래픽을 활용하고 이용자의 인지도와 경험 형태를 파악해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올해 ‘머니2.0’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머니1.0 시대가 선불 충전 사업자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결제·송금 등 사업을 해오며 수수료 부담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머니2.0 시대에는 결제, 증권, 보험까지 융합해 종합금융사로 변화할 전망이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지난 6일 300억원 규모의 바로투자증권 지분

kakao

결제·증권·보험 융합에 포커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카뱅과 손잡고 생활밀착형 금융도

60%를 인수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출범하며 머니2.0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18일까지 기존 사용자의 선불 충전 계좌를 실명 증권 계좌로 전환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투자 솔루션, 자문형 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도 한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금융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고객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목표로 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도 준비 중이다. 배재현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3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험 상품 생산자로서의 역량 확대를 위해 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인슈어테크(보험+기술)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상품 개발·마케팅 등 전 영역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IT 기업이 들어오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폭발적 성장세 동남아 석유시장 주목”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사내 인터뷰서 경영 비전 등 밝혀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잘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은 17일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뉴스 전문 채널 스키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최근 글로벌 석유 시장은 지정학적 이슈를 비롯해 ‘IMO(국제해사기구) 2020’ 시행과 같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환경 이슈, 그리고 중동 국영유사의 트레이딩 직접 참여 확대 등으로 야기된 복잡다기한 환경이 전개 됐다”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같은 변화 속에서 기민한 대응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10년 이상 해상유 블렌딩 비즈니스를 해 오고 있다. 다양한 유분의 원재료 및 블렌딩을 통해 대표적인 해상유 규격인 HSFO(고유황중유)를 비롯해 황함량 0.1% 이하의 ULSFO(황함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SK이노베이션

미얀마 BOC社 지분 35% 인수
트레이딩물량 안정적 확보하고
해외 리테일 진출 교두보 마련
구조 변화의 위기, 기회 삼아야

량 0.1%의 저유황중유) 등을 생산해 선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고객에게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석유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SK그룹 및 SK이노베이션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기회도 모색해 왔다”며 “특히 미얀마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난해 7월 SK에너지와 함께 약 1500억원을 투자해 미얀마 석유유통업계 2위인 BOC사의 지분 35%를 인수했다. 이는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인 트레이딩 물량을 확보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리테일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의 경영환경 또한 결코 녹록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껏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전구성원이 보여준 변화와 혁신이 시장 변화 등 경영 환경에 잘 맞게 발휘된다면 어떤 도전이라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skim2935@

포스코인터, 미얀마서 신규 가스총 발견… “생산성 확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가스전 ‘신화’를 이어간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7일 미얀마 A-3 광구 해상 시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하’(위대함을 뜻하는 미얀마어) 유망 구조의 가스산출시험을 실시했다. 산출 시험 실시 결과, 1개공 일일 약 3800만 입방피트의 생산성을 확인했다.

이번 가스총 발견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새로운 가스전 성공 신화의 발

판을 마련하게 됐다.

탐사 시추는 시추 장비를 이용해 지층 내 가스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가스산출시험은 시추 후 가스가 발견된 지층의 가스 생산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2일부터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지역인 마하 유망구조에서 지하 약 2598m 까지 시추를 실시했고, 약 12m 두께(공극률

35% 수준)의 가스총에서 양호한 생산성을 확인함으로써 심해 탐사역량을 또 한번 입증하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하 유망구조 가스총에 대해 2021년부터 평가 시추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후 2년여간의 정밀 분석작업을 거쳐 가스전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 미얀마 가스전을 잇는 캐시카우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실적 악화에 철강업계 주름살 비핵심사업 매각 등 체질개선

포스코·현대제철 모두 영업익 ‘뚝’
일반경비 줄이고 희망퇴직 등 허리띠
동국제강, 고가 제품 생산으로 선방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
가 군살 빼기에 나선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철강석 수입 가격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전기로를 고집한 동국제강만 고가 제품을 집중 생산하며 수익선 개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체질개선에 나선다.

◆체질개선 나선 포스코·현대제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강석 수입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은 높아진 반면 조선과 자동차 업계 불황으로 제품가격 인상에 실패하며 위기에 빠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매출액 64조3668억 원, 영업이익 3조868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9%, 영업이익은 30%나 급감했다. 현대제철의 실적은 더욱 부진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매출액 20조 5126억원, 영업이익 33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 67.7% 급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실적 개선을 위해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일반 경비 30% 절감에 나서는 등 ‘코스트 이노베이션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용절감 측면을 넘어 구조적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말 만 53세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회망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자

발적인 희망퇴직을 통해 100여명의 인원이 퇴직했다. 올해는 비핵심 사업 부문 매각에 속도를 높이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각 부문에 신설했다. 자동차 관련 사업 여량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철강사업 경쟁력 강화TF’,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전략TF’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전기로를 사용하는 동국제강은 지난해 원가 부담 감소로 합박웃음을 지었다. 전기로는 철광석 대신 철스크랩(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국내 고철 가격은 2018년 t당 39만원에서 지난해 33만원으로 하락했다.

◆조선·차 불황 수익 개선 쉽지 않아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업계의 수익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판과 후판 가격 인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철광석 가격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t당 122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조금씩 내렸지만 지금도 t당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원료 가격은 급등했지만, 자동차·조선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철강 제품 가격은 거의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원자료인 철광석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전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는 업황이 녹록지 않아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수요 위축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자 자동차·조선업체들이 가격방어에 나서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인상 시점에 원자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철강사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